

優作으로 推定된다. 이 佛像에 對하여는 記錄이 全히 없는데 隣近의 瓦片 등으로 미루어 建物이 있었던 것으로 推定되며 이렇듯 貴重한 一例가 放置되었음에 對하여 앞으로 當局의 保護施策과 아울러 이 곳 一帶의 發掘再調査를 期待하는 바이다.

實測値는 總高 二四〇cm 光背 厚 二四cm 高一八〇cm 廣幅 一〇〇cm 下

幅 八cm

佛像 肩幅 四二cm 胸幅 二〇cm 頭高 三六cm

二、池塘里立佛

池塘里道路邊 畑中에 南向하여 現存하는 바 이에 關해서는 寶物古蹟調査資料에 記錄(註)이 보인다. 厚 四〇cm의 花崗板石으로 圓刻된 이 立像은 兩肩에 圓形頭光이 있으며 臺座는 없다. 頭光에는 頭部左·右周邊에 蓮瓣이 彫刻되었고 上部에는 無瓣인데 그 外周緣에는 花紋이 어릴듯하다. 像高는 三三三cm로서 素髮의 頭頂에는 큼직한 肉髻가 있고 兩耳가 窄다. 相好는 磨損이 甚하여 各部分이 分明치 않으며 三道는 없다. 通肩한 法衣는 胸前에서 U字形을 이루고 그 밑은 길게 圓弧를 그리면서 내려졌으며 兩腕에 걸친 衣紋은 굵게 垂下되었는데 左腕에서는 주름이 잡힌채 下端까지 내려진 것과 下端紋의 樣式的인 주름이 注目되었다. 兩手足은 別造로 鑄는 形式이어서 그 位置에 圓孔이 右手보다 밑에 있는 點과 左腕에 걸친 衣紋으로 보아 與願施無畏의 印相으로 짐작된다. 後面은 衣紋이 全無하며 굵게 다름었다. 頭光이나 衣紋의 手法으로 미루어 보아 年代는 前述한 樂洞里立像과 同代로 推定되었다. 앞으로의 保護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實測値는 總高 三三三cm 佛像肩幅 一一五cm 頭光徑 一八二cm

끝으로 이 調査에 있어 함께 踏査하여 實測等 많은 助言을 준 同人 文甲洙, 孟仁在, 申榮勳 諸氏와 特히 現地案内에 手苦를 해주신 南原郡 敎育課 楊南根 獎學係長의 厚意에 感謝를 表하는 바이다.

(註) 「石佛一座アリ 高サ十一尺 幅三尺 五寸彫刻アリ 完全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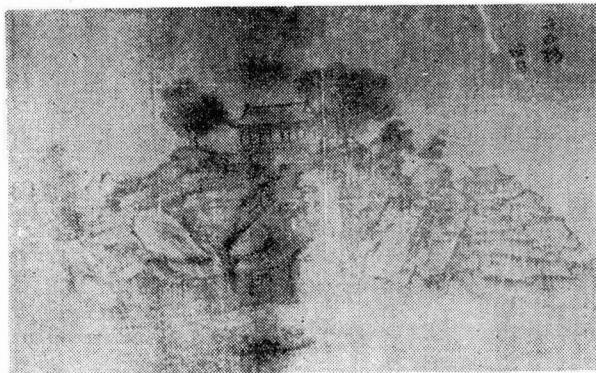
謙齋의 竹西樓圖

孟仁在

竹西樓는 寶物二二三號이며 國寶圖錄 第六輯에 의하면 正面 七間 側面 二間的 規模를 가지고 있는데 建物의 樣式은 李朝中期의 그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그런데 이 竹西樓圖는 描寫가 徹底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推定하는 李朝中期의 本樓建築樣式을 어느 程度 明示하여 준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次元에서(單純한 記錄으로서) 생각할 때 漢陽近郊나 金剛山을 비롯한 京鄕各地의 勝景을 無數히 寫生한 謙齋가 이 竹西樓도 빠뜨리지 않았다는데는 安堵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畫面을 보건대 樓는 中段에 突出한 絕壁위에 있으며 그 左右에 建物들이 나타나 있으나 이들은 지금 볼 수 없는 것들이다. 絶壁은 堅實히 表出되어 있다.



며 舟遊하는 人物들이 갖는 衣冠 動態의 簡古한 表現은 謙齋의 다른 作品에서도 볼 수가 있다.

右 上에는 「竹西樓, 謙齋」라 墨書하고 그 밑에 「鄭敦」(陰文) 方印 一顆가 찍혀 있다.

樓에는 四方의 외목도리를 直接 받고 있는 오늘날의 隅柱가 안 보이는 한편 마루 아래 기둥사이에는 지금은 볼 수 없는 板壁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點은 向左의 建物로 짐작되는 燕謹堂의 存在와 함께 이 建物과 그 周邊의 變貌, 變遷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邑誌에는 或 모르겠으나 輿地勝覽의 竹西樓에 對한 說明은 매우 簡略한데 所在가 客館의 西편이라는 것 以外에는 아무 具體的인 說明이 없다. 그러나 燕謹堂에 대한 記述은 잘치 않으며 「燕謹堂在竹西樓榜」이라 한 것이라든가 「竹西樓之別館也」라 있는 것으로 미루어 向左의 宅지 않은 建物이 그것이라고 推定해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金守溫記 燕謹堂者 三陟府竹西樓之別館也 故府閔紹生所創也 歲癸亥也 屋七間也 多則溫而夏則涼也 大小客之所安處也 火于辛卯後九月也 改于明春 增八間也 十月之交乃落成也——中略——厥初監督者 戶之長金生麗也 金得江也 又金珪等數十人也——中略——是成化八年冬至後七日也」라 說明하고 있는데 西紀一四七三年에 該當하는 落成年인 成化八年(成宗三年)에서 遡及하면 閔紹生이 創建한 癸亥는 世宗二五年(一四四二)이 되며 消失한 辛卯는 成宗二年(一四七二)이 된다.

그러나 이 畫面의 왼편 建物로 짐작되는 燕謹堂은 肅宗——英祖年間의 謙齋(二六七六——一七五九)가 그린 것인만큼 成宗三年에 改建된 그대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는 疑心스럽다. 輿地勝覽이 引用한 金守溫의 手記는 그가 世宗二〇年에 進士가 된 사람인 만큼 그 후의 創建이나 改建의 年代가 自然스럽게 들어맞고 있다.

竹西樓에 대한 說明이 燕謹堂보다 훨씬 取할 바 없이 된 原因은 確實히 알 수 없으나 二百餘年前의 寫生圖를 對하니 거기에 대한 疑問과 不滿을 禁할 수가 없다.

向右편의 亭子는 어떻게 된 것인지 더욱 알 수가 없으나 燕謹堂으로

짐작되는 왼편 建物로부터의 自然石階가 끝나는 데서 水面으로 直立한 「사다리」와 樓의 兩便에 선 巨樹(現狀과 酷似) 등은 興味를 끈다. 縱橫二〇・三×三三cm의 絹本에 淡彩한 小幅인데 오히려 竹西樓의 構造나 燕謹堂의 沿革이 注意된다. (李謙魯氏藏)

漆谷 仁同磨崖佛

尹 容 鎮

漆谷郡 仁同邑에서 海平쪽으로 數百米가면 石峴이라는 고개가 있고 이 南쪽 約百米地點의 東向傾斜地중턱에 高 八m의 花崗岩質의 大岩塊가 突出하여 이 岩壁에 立佛을 浮彫하였는데 지난 二月 五日 鄭明鎬氏와 함께 調査한 바 있기에 간단히 紹介하는 바이다.

이 磨崖佛은 正東向한 立佛로 白豪가 없는 頭上에는 平扁方形의 寶蓋를 얹었고 足下는 六葉의 蓮瓣이 새겨진 圓形座臺를 具存하였다. 座臺와 寶蓋를 除外한 立像全高는 七・一五m이다. 剃髮・長耳 鬚은 眼窩에 다 새긴 細眼, 넓고 낮은 肉髻, 가법계 다문입, 굵고 짧은 목에 새겨진 三道, 厚肉하게 새겨진 胸部와 肩部等 잘 整齊된 그 모습은 新羅佛에서 흔히 보는 特徵과 相通한다. 손은 表面이 조금 磨滅되어 分明치 않으나 兩手를 가슴에 얹고 왼손은 外掌하여 손금이 두 줄 보인다. 拇指와 無名指를 가법계 대었고 그外三指는 위로 뻗

